

# 선진시스템 정착과 적극적인 참여가 안전경영의 핵심

## 최상의 안전관리기법 도입에 박차 가할 것

유두현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장 / 안전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자

사업장에 우수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요소는 무엇일까.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원활한 노사관계,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 선진 안전기술 및 기법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 이 모두가 무재해 사업장을 만드는 기본 틀이지만 그중에서도 ‘경영진의 안전의지’는 단연 사업장 안전활동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우수한 안전관리 체계가 갖추어진 사업장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경영진이 안전보건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열린 안전경영대상에서 최고상인 종합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역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본부의 총책임자인 유두현 본부장이 굳건한 안전 신념으로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유 본부장을 만나 그의 경영방침과 철학 등에 대해 들어봤다. 취재 연설기 | 기자 skyway@safety.or.kr

안전에 대한 남다른 신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활동과 안전관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경영진이 안전에 대한 강한 열정이 있다고 해도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결국 안전활동은 보여주기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업장에 완벽한 안전관리체계가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근로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경영진은 지시가 아닌 솔선수범으로 안전활동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경영진이 앞장서면서 근로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주지시킨다면 결국 근로자들도 열과 성을 다해 안전활동에 참여하기 마련입니다.

###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원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저장해 기화한 후 전국의 29개 발전소 및 32개 일반 도시가스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 3개의 LNG 기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인천기지본부입니다. 인천기지는 한국가스공사의

전체 LNG 도입·공급량의 38%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도권 천연가스 수요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에는 제20호 저장탱크를 준공해 총 용량 288만KL의 저장능력과 시간당 4,350톤의 송출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와 더불어 세계 1, 2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안전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듯합니다.**

맞습니다. 혹여 안전관리에 한 치의 오차라도 생겨 가스 공급이 중단된다면 곧바로 수도권의 산업과 국민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저희가 펼치고 있는 안전 활동을 조금 소개하자면, 현재 전사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인 EHSQ(Environment, Health, Safety, Quality)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 적용된 안전관리 활동의 결과를 분석·평가·환류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안전 경영이 끊임없이 개선·발전하는 토대가 되고 있지요.

또 매일 아침 부서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안전미팅을 정례화해 그날의 주요 작업사항과 위험요인을 체크해 관리하고 있으며, 매주 한 번 이상 부서장급 전원이 합동으로 주요 작업현장을 순시하면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기도 합니다.

**위 질문에 대해 우수한 안전활동을 몇 가지 더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난관리 절차에 의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 역시 저희 사업장 안전활동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화재사고 대응책을 들어 보도록 하지요. 현재 저희는 화재사고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본부 내에 자체 소방서를 운영하는 한편 화학소방차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40톤의 분말소화설비와 시간당 27톤을 동시에 살수할 수 있는 살수·수막설비 등을



갖춤으로써 만일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제세동기(AED), 산소호흡기를 포함한 각종 인명구호·구조 장비를 구비하여 유사 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조치가 가능토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는 화재피난교육, 인명구조교육 등을 실시해 사고 발생 시 이 같은 장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안전관리 계획이 궁금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현장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자체 인력을 활용해 안전관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기본이자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업무가 계속될 경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저는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 관리기법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선진안전문화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외부의 안전관리 및 진단전문기관을 통해 기지의 안전문화에 대한 평가와 현장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분석·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같은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돼 사내의 안전관리 기법이 더욱 발전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보다 더 안전한 현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